

## Dr. Robert Vannoy, Kings, 강의 4

© 2012, Dr. Robert Vannoy, Dr. Perry Phillips, Ted Hildebrandt

### Text of Kings, Deuteronomistic History, Major Emphases

마소라 본문(MT)과 칠십인역(LXX)에 있는 열왕기 본문

자, 그러면 텍스트 섹션을 살펴보고 방금 배포한 내용을 15절부터 시작하여 계속하겠습니다. 이제 이 모든 자료는 내가 유인물에 넣는 한 입문 유형에 불과합니다. 지난주에 이름, 일반적인 내용, 책의 구조, 저자, 출처, 구성 연령에 대해 논의한 다음 13페이지에서 "텍스트"에 도달했음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먼저 텍스트 섹션을 살펴본 다음 새 유인물로 이동하겠습니다. RK 해리슨(RK Harrison)의 *구약 개론(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은 왕들의 히브리어 본문이 수많은 부패를 포함하고 있으며 재건의 목적을 위해 70인역이 귀중한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마소라 본문보다 짧으며 더 신뢰할 수 있는 차이를 보존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70인역은 현존하는 것보다 더 순수한 형태의 히브리어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쿰란의 동굴에서 발견된 열왕기의 단편들은 대부분 마소라 본문보다 칠십인역의 바탕에 더 가까운 히브리어 본문이 한때 존재했다는 견해를 뒷받침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둘 다 우수합니다.

예를 들어 왕국의 붕괴에 대한 두 번째 기록으로 보이는 것은 70인역의 열왕기상 12:24 다음에 삽입된 것입니다. 그것은 솔로몬의 죽음과 르호보암의

통치와 관련된 사건들을 설명하고 열왕기상 11장과 12장의 자료를 일부 반복하여 여로보암의 반역에 대한 설명을 제공했습니다. 스위트는 이 삽입이 혼란의 두 번째이자 뚜렷한 상승을 구성했다고 말합니다. 이야기, 히브리어 원본에 대한 첫 번째와 동일하게 휴식. 이 특별한 기록의 가치가 무엇이든 간에, 칠십인역과 때때로 그것의 루시안 개정판이 열왕기의 본문 연구에 없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 그것은 다소 기술적인 자료입니다. 나는 열왕기 본문에 대한 논의에 끼어들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열왕기의 본문은 사무엘서의 본문과 유사합니다. 전송 과정에서 분명히 텍스트에 스며든 몇 가지 오류가 있기 때문에 매우 복잡합니다. 또한 70인역이 배경에 관한 한 다른 히브리어 전통에 기초하고 있고, 현재의 히브리어 본문이 마소라 본문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본문 문제에 관한 한 차이점을 비교하는 것은 고도로 기술적인 문제가 된다는 것도 매우 명백해 보입니다. 그것은 복잡한 문제이며, 대부분의 경우 주어진 경우에 Masoretic 읽기보다 칠십인역 읽기를 선호하는지 여부에 대해 많은 불확실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왕기의 본문이 완전히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는 잘못된 인상을 갖지 맙시다. 이러한 차이점은 일반적으로 텍스트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소한 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경우에는 관사와 일부 히브리어 텍스트가 있지만 칠십인역에는 관사가 없는 명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차이는 그런 종류의

매우 사소한 것이지만 차이점이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칠십인역이 선호하는 읽기를 보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계속하자면 해리슨이 일반적으로 열왕기에 대한 본문 연구에서 70인역의 중요한 역할을 할당한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옳지만, 이것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한 영역, 즉 연대기의 영역이 있습니다. Kings의 연대기는 완전히 신뢰할 수 없다고 오랫동안 생각되었습니다. 분명히 칠십인역의 번역자들은 이러한 관점을 공유했고 이러한 문제 중 일부를 제거하기 위해 본문의 숫자를 자주 변경했습니다. 에드윈 틸레(Edwin Thiele)는 *The Mysterious Numbers of the Hebrew Kings* 에서 마소라 본문이 올바르게 이해되었다면 비록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수세기 동안 올바르게 전달된 연대기 데이터를 정확하게 보존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남북 왕의 연대기      나는 지난 수업에서 우리가 남북 왕의 통치를 동기화했다고 생각한다고 방금 언급했습니다. 단순히 숫자를 더해서 해결하려고 하면 수백 년 동안 오랫동안 동기화되지 않습니다. Edwin R. Thiele이 *The Mysterious Numbers of the Hebrew Kings* 라는 책을 저술 하고 이러한 차이점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기 전까지는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 그러나 당신은 요점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통치 가 분명히 일치하지 않았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 그것들은 본문에 유지되었고, 이것은

실제로 적어도 본문의 그 부분의 전송의 정확성에 대한 증거입니다 . 70  
 인역과 같이 명백한 동기화 문제인 경우 약간의 수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그 영역에서는 마소라 본문이 선호하는 본문을  
 보존해 온 것 같습니다. Gray *1 and 2 Kings* , page 45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데이트 시스템을 사용하면 이러한 동기화의 많은 어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Thiele이 논의하기 전까지는 문제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었습니다.

열왕기 본문을 평가하는 데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The Biblical Criticism: Historic, Literary and Textual*, Zondervan, 1978 에서 Bruce Waltke가 쓴 “The Textual Criticism of the Old Testament” 기사를 참조하십시오. 그 질문.

계속해서 새로운 유인물을 살펴보겠습니다. Thiele은 현재 초판보다 최신판인 새 판으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그는 또한 그의 더 큰 작업에 대한 일종의 간략하고 대중화된 요약물 썼습니다. 그것은 출판되었고 제 생각에는 *히브리 왕들의 연대기* 라고 불렸을 것입니다 . 그것은 더 큰 작업을 정말 잘 요약한 작은 문고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문고판은 불행히도 아직 인쇄되지 않았지만 더 큰 작업은 있습니다.

신명기 역사      지난 35년 또는 40년 동안 신명기 역사 신학은 “신명기

역사”라고 불리는 것의 본질과 목적에 대해 완전하고 복잡하며 지속적인 논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 이 논쟁의 대부분은 이 역사를 구성한 역사가 또는 역사가들의 신학적 목표 또는 목적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지난 주에 “신명기적 역사”라는 용어를 언급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그 용어를 내가 합법적이라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성경에 대한 높은 관점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용어 자체는 Martin Noth에 의해 유명해졌습니다. 즉, 신명기의 영향을 받은 포로 시대 에 살았던 작가가 있다는 그의 생각입니다. 물론 Noth는 신명기를 모세서가 아니라 포로 직전인 요시아 시대인 BC 621년의 것으로 이해했다. 그러나 포로 생활을 하는 이 필자는 신명기 신학의 영향을 받아 신명기부터 열왕기하 끝까지 이어지는 전체 자료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신명기는 그의 저서에 대한 서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는 모두 이 신명기 역사의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농경 신학자의 관점에서 쓰여진 가나안에서의 이스라엘 역사의 전 기간을 나타내는 신명기 역사입니다.

이제 결과를 고려하십시오. 그것은 역사가 신학적 틀에 맞는 기록된 관점으로 역사를 왜곡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역사적 저술이 아니라는 것에 기록된 많은 것을 이해하도록 강요합니다. 그는 늦게 글을 쓰고 자신의 신학을 이전 시대로 되돌려 놓고 그렇게 함으로써 실제로는 결코 일어나지 않은 패턴을

따르도록 일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한 견해는 성경으로서의 성경과 양립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 용어를 내가 참되다고 생각하는 것을 반영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는 신명기의 신학적 사상을 반영합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어떤 질문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 요점은 신명기는 시내산 언약에서 주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설명하는 모세 시대에 성경이 배치한 곳에 배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수세기에 걸쳐 사건의 과정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포로기에 살고 있는 한 명의 작가로 보지 않고 여호수아의 작가, 사사기의 작가, 사무엘의 작가, 열왕기의 작가로 보는 작가들은 모두 그 생각의 흐름.

그래서 그들이 그 다양한 시대의 역사를 구성할 때, 신명기에서 프로그램된 대로 일이 일어났고 일이 일어난 대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순종하면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면 하면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 이스라엘의 역사는 수세기에 걸쳐 일어난 일을 반영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명기의 역사 신학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정당한 방법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나아가 봅시다.

열왕기의 성격, 목적 및 강조점 가. 저자는 언약적 관점 에서 이스라엘과 유다 왕의 역사를 제시한다.

하나는 강조점과 구조로 볼 때 열왕기상하의 성격과 목적이다. 일반적으로 나는 열왕기 상하를 숙고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관찰이 입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A. 저자는 언약적 관점에서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역사를 제시합니다. 주요 논제는 국가의 복지가 모세 언약에 정의된 대로 왕과 백성의 언약적 의무에 대한 순종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의 자료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열왕기의 근본적인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왕기에 오시면 왕국시대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언약적 관점에서 그 시대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주요 논제는 국가의 복지가 왕과 백성의 언약적 의무에 대한 순종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B. 언약 원칙에 근거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예언적 평가

나. 이 언약적 관점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분석한 내용은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하까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책들은 유대 전통에서 총칭하여 "전 선지자"라고 불립니다. 이 책들이 언약 원칙에 기초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예언적 평가를 포함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매우 실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이전 선지자들"이라는 용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사 책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좋은 명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종 역사를 분리되고 객관적인 종류의 연대기 사건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 쓰기에는 항상 관점이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가는 어떤 기준에 따라 진행된 일을 평가하고 사물을 판단하고 시작점이 무엇이든 기록합니다.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상하까지의 저자들은 이 언약적 관점을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평가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반영된 것 같아요.

예언적인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언적 해석입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영감받은 해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에 있는 이러한 사건들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관점입니다.

역사는 매우 신비한 것입니다. 사건의 의의나 의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등을 평가하려 하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옵니다. 한 사람에게 물어보면 한 가지가 될 것이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른 것일 것입니다. 매우 애매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해석할 수 있는 신성한 말씀이 없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하게 평가하는 방법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에 대한 영감받은 해석입니다.

### c. 열왕기 저자/편집자의 언약적 관점



c. 열왕기상하에 포함된 자료의 선택과 특성은 저자/편집자의 언약적 관점과 관련하여 이해되고 평가되어야 합니다. 이제 나는 열왕기상하의 저자가 소스를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작성자/컴파일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출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활용하고, 결합하고, 이 책을 만들었지만, 통일된 방식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를 저자/컴파일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저자의 목적은 현대적이고 세속적인 역사 기술의 원칙에 따라 이스라엘 왕국 시대의 정치적, 경제적 역사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저자는 다양한 왕들과 그들의 행동의 중요성에 대해 정치적-경제적 판단이 아니라 언약적 판단을 내립니다.

예를 들어, 세속 역사가의 관점에서 보면 오므리는 북 왕국의 가장 중요한 왕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통치는 6개의 구절(열왕기상 16:23-28)에서 해산됩니다. 시리아에서 언급된 오므리는 그가 북왕국에서 중요한 왕이 된 지 100년 후의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오므리에게 많은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를 북왕국의 수도로 세웠고 꽤 오랫동안 지속된 왕조를 세웠습니다. 그는 중요한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의 저자는 여섯 구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북쪽의 여로보암 2세의 중요한 역할은 열왕기하 14:23-29에서 간략하게 다룹니다. 여로보암 2세는 정치적, 경제적 의미에서 북왕국을 최고조에 이르게 했으며 심지어 국경을 북쪽으로 확장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열왕기의 저자에 관한 한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로서 요시야 또 다른 예로서, 저자는 요시야 통치의 처음 18년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의 통치 18년에 시작된 개혁으로 그의 통치에 대한 설명을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22:3이 이어집니다. 거기에는 요시야가 이스라엘을 다시 여호와께 부르며 유월절을 지켰을 때의 개혁에 관한 몇 장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집트, 바빌론, 앗수르, 시리아의 지정학적 세력이 바빌론으로 크게 이동한 중요한 정치적 사건은 요시야의 죽음과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시됩니다. 요시야 시대에 당신은 고대 세계에서 진행되는 주요한 권력 전환을 경험했습니다. 권력의 이양은 아시리아 지배에서 바빌론 지배로의 전환이었습니다. 이집트는 그 권력 이동에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그것은 정치사에 관한 한 가장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입니다. Kings는 언급조차하지 않습니다. Kings는 그것에 대해 아무 말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이집트의 파라오 느고가 아시리아를 돕기 위해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Josiah, 어떤 이유에서든 Kings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지 않지만 그는

Neco를 막으려 고 나갔고 그가 죽임을 당했고 우리는 그가 Pharaoh Neco와의 전투에서 어떻게 죽었는지 들었지만 그것이 유일한 것입니다. 제기된 이유. 국제 정치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평가하려는 시도가 없습니다. 요시야가 파라오 느고를 반대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심은 왕들이 언약에서 눈에 띄게 이탈했거나 언약을 눈에 띄게 갱신했는지 여부입니다. 이들은 가장 많은 관심을 받습니다. 요시야와 같은 사람, 히스기야와 같은 사람은 개혁과 언약의 갱신을 가지고 많은 주목을 받습니다. 그러면 언약을 버리고 백성을 우상숭배로 이끈 므낫세나 아합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들 역시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주목을 받는 왕들은 언약의 책임에 대해 눈에 띄게 호의적이거나 비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왕들입니다. 그들은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예로서 므낫세    므낫세(열왕기하 21:1-19)는 언약에서 이탈한 예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그의 통치의 정치적 특징보다 강조되는 것은 그의 언약 불순종이다. Esarhaddon과 Ashurbanipal의 텍스트에서 Manasseh가 언급되는 아시리아 기록에서만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Kings가 므낫세의 통치를 다룰 때 국제 및 정치 현장에 그가 관여한 것이 무엇인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이 아시리아 기록이 그것을 언급하기 때문에 그는 관련되었습니다. Kings는

그것에 대해 아무 말도하지 않습니다. 열왕기는 그가 주님을 외면한 방법과 므낫세의 바빌론 유배에 대해 알려줍니다. 그는 아시리아에 의해 바빌론으로 추방되었습니다. 당시 바벨론과 앗수르 사이에 바벨론의 지배권 다툼이 있었고 이것이 바벨론의 흥기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므낫세가 바벨론으로 추방되고 나중에 그가 회개한 것은 역대하 33:10-13에만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Kings에서 그것에 대해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아합은 특별한 정치적 중요성 때문이 아니라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계약의 충실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 때문에 광범위한 대우를 받은 또 다른 통치자입니다.

긍정적인 면에서 히스기야와 요시아는 언약 갱신에 관여했기 때문에 광범위한 대우를 받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방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북방 분단왕국 시대의 초대 왕으로 단과 벤엘에 그 금송아지를 세웠습니다. 그 뒤를 이은 북방의 모든 왕들이 그 일을 따랐으므로 그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좋아요, 열왕기에 포함된 자료의 선택과 특성이 이 언약적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기본 아이디어가 있는 "c"였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왕국 시대에 대한 정치적-경제적 평가가 아니라 언약적 평가입니다.

D. 저자는 예언과 성취 사이의 상호 관계를 강조합니다.

D. 저자는 이스라엘 국가의 경험에서 역사적 발전에서 예언과 성취 사이의 상호 관계를 강조합니다. 예언과 성취에 많은 강조가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역사적 경험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우리는 미리 들었고 그들은 지나갔습니다. 게르하르트 폰 라드(Gerhard von Rad), *신명기 역사신학, 열왕기상하*, “주술사 및 기타 에세이의 문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예언과 성취는 열왕기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그는 일반적으로 “주께서 [주어진 선지자]의 입으로 하신 말씀과 같이” 또는 이와 유사한 성취 인용과 같은 어떤 표현으로 성취가 시작되는 11개의 사례를 열거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11 번 만납니다. 열왕기에서 이렇게 강조한 결과, 이 시대의 역사는 어떤 사건들이 우연히 합류하여 생겨난 우연의 혼란스러운 조합으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역사의 과정은 통치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목적에 따라 이스라엘의 역사적 운명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에 대한 관점입니다. 역사를 통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런저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실 수 있으며, 그렇게 됩니다. 당신은 열왕기에서 그런 종류의 순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역사의 이 기간을 통과하면서 예언하고 성취하는 것입니다.

## E. \_ 언약의 사자로서 선지자 자신이 탁월함을 가짐

E. 열왕기의 구조에서 예언과 성취가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언약의 사자로서의 역할을 맡은 선지자 자신이 두드러진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사람들을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고 언약에 대한 순종으로 되돌리려는 그들의 시도에 대해 광범위하게 보도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아마도 열왕기서에서 다른 두 사람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매우 유명합니다. 엘리야와 그의 후계자 엘리사의 사역에 관한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성역을 언급한 다른 선지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히야, 열왕기상 11:29; 스미야, 열왕기상 12:22; 예후, 열왕기상 16:1; 미가야, 열왕기상 22장; 홀다, 열왕기하 22:14; 요나, 열왕기상 14:23-27; 그리고 이사야, 열왕기하 19장입니다. 마지막 두 사람인 요나와 이사야만이 그들의 이름을 딴 성경책을 우리에게 준 정경 또는 저술 예언자로 불립니다. 다른 예언자들은 기록했을 수도 있고 기록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기록했다면 보존되지 않았고 성경 정경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길에 순종하도록 왕들을 부르는 데 선지자와 선지자의 역할이 크게 강조됩니다.

## F. 언약에 대한 순종/불순종과 혼합된 다윗에 대한 주님의 약속

F. 저자는 역사적 운명에 대한 결정적인 의미로서 이스라엘의 언약적

의무에 대한 순종 또는 불순종을 강조하는 동시에 다윗 왕조가 영원히 존속할 것이라는 여호와와의 약속의 원대한 의미를 인식했습니다. 다윗의 집과 그가 그의 이름을 거하게 하신 예루살렘 도시에 대한 이 신성한 헌신은 또한 이스라엘의 역사적 경험을 결정짓는 요인이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등불”에 대한 언급에서 눈에 띄입니다.

내가 말하는 내용을 볼 수 있도록 그의 참고 문헌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6절: “이는 나라가 나뉠 때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한 지파를 그의 아들 곧 솔로몬의 아들에게 주어서 내 종 다윗에게 항상 등불이 그 앞에 있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 르호보암이 유다 왕위를 계승하던 때에 솔로몬이 여호와께로부터 돌아섰고 여로보암이 반역했을 때 여호와께서는 유다 지파를 르호보암에게 주심으로 다윗의 혈통을 보존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나의 종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항상 내 앞에 등불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역사의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약속 때문에 다윗의 왕좌를 보존하셨습니다.

15장 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어 그의 뒤를 이을 아들을 일으키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느니라. 다윗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헛

사람 우리아의 경우 외에는 그의 평생에 여호와와 명령을 하나도 지키지 아니하였더라.”

알다시피, 그 구절은 앞에 오는 것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비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당신은 3절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어 그의 뒤를 이을 아들을 세우셨습니다.”

알다시피, 내가 하려는 요점은 다윗에게 한 약속이 또한 이스라엘 역사의 발전 과정에서 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8장 19절이 또 다른 것이라는 언급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다윗에 대한 약속(왕상 8:20, 25; 9:5)과 이것이 유다의 후기 역사에서 특정한 역사적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일반적인 언급에서도 나타납니다. 열왕기상 11장, 12장, 13:11-32 참조. 열왕기의 저자는 이스라엘 역사의 과정에서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 다윗의 생애와 통치는 후기 왕들의 생애를 측정하는 이상적인 기준이다

사. 후기 왕들의 삶을 측정하는 이상적인 기준으로 다윗의 삶과 통치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그 중 하나를 읽을 뿐이지만 여기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하겠습니다. 15:11을 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15:11을 보는 것과 같은 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보라,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여 칭찬을 받고 다윗을 왕을 심판하는 기준으로 삼고 다윗을 이상으로 삼는 그런 표현, 자주 있는 일이다. 여기에서 저자는 일반적으로 왕권 제도, 특히 다윗의 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열왕기의 저자가 왕권에 대해 전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가졌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왕들이 지속적으로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고, 그것에 대해 비난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작가가 왕권에 대해 완전히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그가 다윗에 대해 말하는 방식에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 H. \_ 포로 백성에게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굴욕을 당하는 이유를 설명하려는 목적 열왕기하는 포로된 백성에게 그들이 굴욕을 당하는 이유가 그들이 언약을 깨뜨린 백성이었기 때문임을 설명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유배지에서 작성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심판을 받았고, 그들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 이유가 여기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그들에게 매우 명확하게 설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들에게 포로를 가져오신 데 있어서 공의로우시다.

우리는 열왕기하 17:6-23에서 북왕국에 관한 이것을 봅니다. 그것을 보자. 북 왕국의 몰락이기 때문에 중요한 챕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이 발생하면 북 왕국이 망명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제공됩니다. 처음 5~6절에서 어떻게 앗수르인들이 와서 사마리아를 침공하여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앗수르로 추방했는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다른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들의 관습 과 이스라엘 왕들이 세운 관습을 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옳지 않은 일을 은밀히 행했습니다.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기 까지 그들의 모든 성읍에 산당을 세웠더라 그들은 모든 높은 언덕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신성한 돌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들이 행한 것처럼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였다. 그들은 악한 일을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이러지 말라' 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선지자와 선견자를 통해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율법 전체를 따라 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 1 . 그들을 성약으로 다시 부르시는 선지자들

보십시오, 그들을 다시 언약으로 끌어내고 율법을 다시 순종하도록

끌어들이는 것이 예언자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한 그들의 조상 같이 목이 곧은지라.” 그리고 15절에 “그들이 그의 율례와 그의 조상들과 세우신 언약과 그들에게 주신 경고를 버렸더라” 고 했습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들이 그의 율례와 언약을 버렸더라” 그들은 우상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민족을 모방했습니다. 16절: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더라.” 18절: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그 앞에서 제하시고.” 그것이 바로 문제이며, 열왕기는 망명 중인 한 백성에게 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설명합니다.

18절이 계속되는 방식에 주목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장은 북왕국의 타락이라는 맥락에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작가는 망명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남왕국도 그랬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그가 “유다 지파만 남았고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더라” 고 말씀하신 것을 보십시오. 아시다시피, 유다에게 내려진 심판은 바로 그 심판입니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이스라엘이 도입한 관습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습니다. 17장의 설명은 왜 그것이 북쪽에만 적용되지 않고 남쪽에도 똑같이 적용되는지 에 대한 설명입니다 . 그리고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들은 언약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괴롭게 하여 약탈자의 손에

넘겨주어 마침내 자기 앞에서 쫓아내었다. 그것은 남쪽 왕국인 유다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열왕기하 17:6-23에서 북왕국에 관한 이것을 봅니다. 우리는 방금 본 두 구절에서 열왕기하 17:18-20에서 남왕국과 관련하여 그것을 봅니다.

열왕기하 21장은 므낫세의 통치에 대해 알려줍니다. 그리고 가장 악한 남방 왕인 므낫세의 통치에 대해 읽을 때 여호와께서는 므낫세 때문에 유다로의 포로 생활이 불가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올 것이다, 결정된다, 정해진다. 므낫세에 이어 요시야와 함께 개혁을 발견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는 너무 늦습니다. 열왕기하 22장과 23장에서 요시야 치하의 개혁은 너무 작고 너무 늦은 것으로 간주됩니다(참조 열왕기하 23:26, 27). 26절과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게 하셨다는 사실은 유다가 끈질기게 그를 배반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유다의 지속적인 생존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은 기본적으로 예루살렘의 멸망과 포로 생활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주어진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회고적 분석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것을 잃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저자는 역사 전체를 통해 다윗에게 한 약속을 지킨다.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그에 따른 시나이 언약의 저주의 실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의 의미는 해결되거나 언급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약속은 이스라엘이 절망이 아닌 희망의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기초로서 열왕기에서 두드러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von Rad는 그의 기사 "주술사의 문제"에서 열왕기하 25장 27-30절에 대해 말합니다. 바벨론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Von Rad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분명히, 여기에서 엄격하게 신학적인 용어로 언급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신중하게 측정된 표시는 야훼께서 원하신다면 더 건설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기 때문에 신명기 기자에게 엄청난 의미가 있는 언급된 사건이 제공됩니다. . 어쨌든 독자는 이 구절을 다윗의 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종말에 이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책의 끝에서 다윗의 가계는 여전히 온전합니다. 여호야긴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당신은 그 너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작가는 추측하지 않는다. 자, 그것은 모두 "이 강조점과 구조에서 볼 수 있는 열왕기 상하의 성격과 목적"이라는 제목 아래에 있었습니다.

## 2. Martin Noth와 Gerhard von Rad의 신명기 역사

여러분이 보는 강조점의 종류와 그것이 책의 목적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한 몇 가지 아이디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2" "Martin Noth와 Gerhard von Rad가 주창한 신명기 역사에 대한 접근 방식에 대한 몇 가지 간략한 논평." 첫 번째 Martin Noth, 그는 용어의 전문적인 의미에서 이 전체 "신명기 역사"의 창시자였습니다. Martin Noth는 신명기에서 열왕기하까지의 모든 내용이 포로 시대의 신명기 역사가의 작품이라는 생각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견해는 이 신명기 역사에는 미래에 대한 비전이 전혀 없습니다. 유일한 관심은 과거에 있습니다. 그는 이 작품에서 종말론적 차원을 보지 않으며, 신명기 역사가는 어디에서도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져온 재앙을 넘어 계속될 수 있다고 확언하거나 암시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완성된 역사입니다. 그는 열왕기하 25:27-30이 미래의 회복에 대한 언급을 담고 있지 않으며 어떤 관점에서든 그러한 해석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이 부정적인 견해는 불순종에 대한 저주를 선언한 신명기와 일치하는 것으로 Noth는 봅니다.

이제 신명기를 알고 있다면 "신명기 30장은 어떻습니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회개를 일으키실 것이며 회개할 때 디아스포라가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Noth는 신명기 30:1-4을 나중에 추가된 것으로 본다. 크리티컬 시리즈의 모든 것입니다. 그런 구절이 이론과 맞지 않으면 항상 원래 거기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윗의 약속과 열왕기의

내러티브에서 그 기능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지만 책을 관통하는 다윗의 주제는 긍정적입니다. 이제 인정하건대, 다윗의 가계에서 나온 왕들은 이상에 따라 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내가 네게 영속하는 왕조를 주리라” 는 사무엘하 14장 7 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Von Rad & Heilsgeschichte [구원 역사]

von Rad로 이동하겠습니다. Noth와 von Rad는 모두 현대적이고 합리주의적이며 비판적인 학자이며 복음주의 학자가 아닙니다. 신명기 역사가에 대한 Noth의 문학적 테제를 기대하면서 von Rad는 세상의 목적이나 목적에 대한 Noth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역사에 대한 폰 라드의 관점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그의 용어)에 대한 신학인데, 그가 여기서 발견한 것입니다. 이 단어는 신명기에서 처음으로 선포된 다음 나머지 자료에서 반복됩니다. 일어나는 일은 이 충분한 말씀의 결과입니다. 역사를 “구원의 역사”( *heilsgeschichte* ) 로 만드는 것은 이 단어의 기능입니다 . *Heils geschichte*는 “구원의 역사”에 대한 독일어 용어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정죄(신명기 28:15 이하와 같은 저주에서 볼 수 있음)와 해방(삼하 7 장의 메시아에 대한 약속에서 볼 수 있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역사상 똑같이 효율적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일어난 일과 앞으로 일어날 일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율법과 복음으로 보는 이 이중적 단어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미래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 열왕기하의 끝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미래에 성취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둡니다.

그렇다면 신명기의 역사는 낯과 같이 부정적인 목적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 가문의 회복 가능성에 열려 있다. 폰 라드의 견해는 노스의 견해보다 열왕기를 통해 여호수아의 내용을 더 잘 설명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의 접근 방식은 우리 자신의 믿음을 기반으로 하고 강화할 수 있는 무언가로서 우리에게 참되고 변치 않는 가치를 앗아가는 많은 가정을 포함합니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Von Rad *historie* 및 *heilsgeschichte* 의 경우 두 개의 독일어 용어는 두 가지 다른 종류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Heilsgeschichte* 는 "구원의 역사"이며, 일어난 일이라는 의미에서 *역사 "역사"입니다.* *Heilsgeschichte*는 일어난 일이라는 의미에서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믿어진 역사, 고백된 역사입니다. *역사*는 일어난 일의 의미에서 역사입니다. von Rad의 경우 *heilsgeschichte* 와 *historie*는 급격히 분리됩니다. 그의 관심은 일어난 일인 *역사가 아니라* 그가 구약의 역사 이야기에서 발견하는 고백적 *신성(heilsgeschichte) 에 있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여호수아에서 열왕기하까지의 역사적 내러티브가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어떤 신학자가 이스라엘의 과거의 신학적 의미에 대해 무엇을 믿었고 이것이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예를 들어, 신명기 역사가에 의해 왕국 시대의 모든 왕에게 적용되는 컬트 연합의 의무적 기준에 대해 말할 때 폰 라드와 같은 사람의 견해는 사실 널리 퍼져 있는 견해입니다. 신명기가 예배의 집중화를 요구한다는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숭배 장소는 단 하나뿐이었고 그곳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전체 기간의 모든 왕은 예배의 중앙 집중화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따라 평가됩니다.

이제 그들의 접근 방식은 예배의 집중화에 대한 생각이 요시야 시대와 그곳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까지 발생하지 않았다고 가정합니다. 그것은 요시야 시대에 편집된 것으로 추정되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지만 예루살렘의 모든 합법적인 예배를 제한함으로써 예루살렘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에 의해 예루살렘에 권력을 집중시키려는 특정한 목적으로 모세의 것으로 주장됩니다. von Rad의 계획에 따르면 그것은 Wellhausen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많은 예배 장소에서 단일 예배 장소로의 이동은 Josiah 시대에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역사가에 의해 왕국 시대의 모든 왕에게 적용되는 컬트 연합의 의무적 기준"에 대해 von Rad는 말합니다. "분명히

그것은 군주 시대에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기원전 621년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의 집중화에 대한 요구입니다.

더 나아가 그는 “역사의 모든 시대에서 과거는 항상 어느 정도 후기 시대에 구속력을 갖게 된 기준의 주관적 적용에 의해 잘못 판단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그가 이 역사를 통해 일어난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후기 표준은 표준이 존재하기 이전에 살았던 왕들에게 적용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살았던 시대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기준으로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시대에서 과거는 항상 어느 정도 후기 시대에 구속력을 갖게 된 기준의 주관적 적용에 의해 잘못 판단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이 인용문은 그러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객관적인 올바름에 의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객관성은 보고되는 사건의 사실성이 아니라 신학자의 판단에 기인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나는 그것이 그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미 있는 방식으로 객관성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사실의 객관성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일어난 일의 의미에서 사실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 판결의 객관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이 존재하기 이전의 주관적인 적용입니다. 그는 적어도 그가 말하는 것을 내가 이해하는 한 명백히 그렇지 않은 것에 어떤 종류의 객관성을 부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 “신명기 역사가의 역사적 저술의 명백한 결함( *구약 신학*, 336쪽)에 대해 말합니다. “신명기자는 더 이상 과거의 많은 사건에 대한 건전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그의 관심은 두 왕국에 닥친 재난의 신학적 의미에만 있었습니다. 역사에 대한 이러한 관점을 끌어낸 것은 바로 이러한 관심입니다.”

다른 곳에서 von Rad는 다양한 전통 자료로 작업하는 신명기 역사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종종 이 자료는 신명기 기자의 기본적인 신학적 태도에 쉽게 적응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 언약에 관한 자료는 전적으로 비신명론적입니다.” 라고 von Rad는 말합니다. 그러나 신명기 역사가는 이 때문에 그것을 배제하지 않았다.”

신명기 역사 대 다윗 언약 비 신명기적인 이유는 다윗에 대한 자료가 긍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왕권이 본질적으로 주님의 왕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왕권에 반대했다는 생각입니다 . 다윗에 대한 자료는 긍정적이어서 신명기 신학과 맞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이 그 자체로 오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그가 그것을 읽는 방식입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다윗 언약의 그 자료는 전적으로 비신명적이지만 신명기 역사가는 이 때문에 그것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것은 각각 다른 전통과 이해 관계를 반영하는 모세 언약과 다윗 언약 사이에

근본적인 갈등이 있다는 생각을 반영합니다.” 이것이 폰 라드의 견해입니다. 여기에는 조화되지 않는 두 가지 다른 전통이 있으므로 시내산 언약과 다윗 언약 사이에 갈등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는 *The Problem of the Hexateuch* 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신명기 저자가 그의 전승을 사용하는 폭이 넓다는 것은 신명기 전승이 여기서 그 근거를 유지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명백히 매우 강력한 메시아 개념이 개입하여 청문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전통으로 작업하는 이 저자는 둘 다 너무 강해서 다윗의 것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것은 von Rad의 견해입니다.

여호수아에서 열왕기까지의 역사적 내러티브의 역사성에 대한 폰 라드의 부정적인 태도를 이해할 때,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강조[그리고 그는 그것에 대해 자주 말함] 그것은 보고된 바와 같이 현실이 있지만 오히려 신명기 신학자의 신학적 구성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은 실제로 von Rad의 관점에서 신명기 신학자의 구성물에 불과합니다.

Vannoy의 역사 대 Heilgeschichte에 대한 분석 저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능에 대해 적법한 방식으로 말한 많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것으로부터 실제로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성. *heilsges*

*chichte*, "고백적 역사"와 *역사 또는 실제로 일어나는 일의 의미에서의 역사* 사이의 이러한 구분은 구약 문학에 대한 von Rad의 접근 방식의 주요 문제입니다. 폰 라트의 구약성경에 대한 신학적 분석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지만, 그것은 그에게서 얻어야 하고 폰 라트의 체계가 역사적 진리와 종교적 진리 사이에서 조장하는 내재적 갈등을 피하는 접근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von Rad에게 역사적 진실과 종교적 진실은 두 가지 다른 수준에서 작동합니다. 내가 보기에 성경적 모델은 종교적 진리가 역사적 진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합니다.

그러나 von Rad는 신학적 구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포로 기간에 살았던 저자에 대한 역사적 언급을 인용하고 있으며 그 저자는 그가 역사를 기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역사의 과정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가졌던 방식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백된 역사이다. 그것은 신학적 구조입니다. 그는 그런 의미에서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Nathan Leivad, Peter Lee, Moriah O'Neil, Valerie Plichta, Erika Sanderson,  
Charaliz Isaac 및 Peter Story 편집

러프 편집: Ted Hildebrandt

Perry Phillips 박사의 최종 편집

Perry Phillips 박사가 다시 설명함